

## 아리랑위성 1호 자료배포 체계

최기혁, 이주희, 윤형식, 백홍열

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센터

아리랑위성 1호 (다목적실용위성 1호)는 국가 공공목적으로 정부에서 투자하고 항공우주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국내 최초의 실용급 지구, 해양 및 과학관측 위성이다. 따라서, 아리랑위성 1호 자료의 활용은 국가 공공분야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능한 한 학계, 산업계 및 일반 국민들도 저렴하고 용이하게 자료접근 및 획득이 가능하도록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. 이로써 국내의 위성자료 사용을 확대하고 관련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여 2000년대에는 한국의 위성 원격탐사 및 과학관측 분야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, 이와 더불어 해외활용 및 상용화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. 2000년 6월부터 정상 관측활동을 시작하는 아리랑위성 1호 영상자료 및 과학관측 자료의 공공연구 및 상업적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위성자료 배포에 따른 문제, 즉 공공 및 상용분야의 자료배포 방안에 관한 기본원칙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.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아리랑위성 1호의 자료활용 정책, 위성의 운영방안, 자료배포 방안, 공공 및 상용배포, 가격정책 등에 관한 자료보급 규정을 제정하고 효율적인 자료배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. 본 발표에서는 이와 관련한 아리랑위성 1호 자료 보급규정의 중요사항들과 과학탐사체 (SPS; Space Physics Sensor)의 관측자료 배포체계를 정리하였다.